보건복지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10.(화) 국무회의 종료(별도 안내) 이후 배포 2026. 11. 9.(월)

겨울철 위기가구, 정부가 먼저 찾아 온기 건넨다 「2026~2027년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마련

- 복지부, '겨울철 대비 취약계층 보호 방안' 국무회의 보고 -

- 대설·한파 대책기간('26.11.15.~'27.3.15.) 동안 취약계층 보호 집중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겨울철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지원**하고, 어르신·아동 등 **대상별**로 생계·건강·안전 등 **맞춤형 보호**를 **강화**하여 **국민 모두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2026~2027년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발표하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0일(화) 국무회의에서 '겨울철 대비 취약계층 보호 방안'을 보고하였다. 이번 대책은 **겨울철 난방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한파로 인한 **건강·안전 위험**과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려운 이웃을 **선제적**으로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을 **촘촘히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지난 겨울 **전국 평균 기온**은 1.1℃로 평년(0.5℃)보다 **높았으나**, **한랭질환자**는 364명으로 전년(334명)보다 **증가**하였으며, **사망자**도 8명에서 14명으로 **1.75배** 늘었다. 특히 한랭질환자의 57.4%(209명), 사망자의 78.6%(11명)가 **65세 이상**으로 **고령층**에 **피해**가 **집중**되었다.

올겨울 전국 평균 기온도 평년보다 높거나 비슷할 것으로 전망되지만(기상청, 「2026년 겨울철 기후전망」), 난방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에너지 취약계층**,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인 **주거 취약계층**, **홀로 계신 어르신 등**은 여전히 **겨울철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① 겨울철 위기가구 집중 발굴, ② 위기가구 생활 안정 지원, ③ 대상별 맞춤형 지원, ④ 한파 대비 건강·안전 관리, ⑤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26~'27) 주요 내용 >

위기는 줄이고	복지의 온기는 더하는	모두가 따뜻한 겨울
■ 겨울철 위기가구 선제 발굴 * 에너지·주거 취약가구 중점 발굴 ■ 복지멤버십 확대 * 동절기 생활 안정 복지서비스 4종 안내 ■ 신청주의 개선 * 국민의 신청 없이 복지급여 지급 가능토록 신청주의 개선 추진	■ 난방비 지원 * 에너지바우처, 난방·전기·가스요금 지원 등 ■ 생계비 지원 *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연료비 지원 등 ■ 일자리 지원 * 노인·장애인 일자리 안전한 근무 지원 등 ■ 주거·금융 지원 * 수급자 주택수선, 긴급지원주택 제공, 금융·고용·복지 복합 지원, 이자경감 등	■ 대상별 맞춤형 지원 * 노인, 노숙인·쪽방 주민, 아동 등 ■ 한파 대비 건강관리 * 한랭질환 감시체계 운영, 방문건강관리 등 ■ 한파 쉼터 설치·운영 * 한파 쉼터 지정 및 정보 적극 안내 ■ 시설 안전사고 예방 * 각종 시설 안전점검 및 위험물 제거 ■ 따뜻한 나눔 지원 * 그냥드림, 봉사·기부 확대 등

1. 겨울철 위기가구 집중발굴

정부는 스스로 도움을 요청하지 못한 분들까지 **집중 발굴**하여 **지원**하고, 복지서비스를 **몰라서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맞춤형 안내**를 **강화**한다.

< 위기정보는 폭넓게, 위기가구는 더욱 촘촘하게 발굴 >

우선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하는 위기징후 정보를 기존 47종에서 **50종**으로 확대하여 **약 40만 명의 위기가구**를 **발굴**한다. 새롭게 추가된 **불법사금융 피해자와 취약채무자 정보**를 활용하여 **금융 위기**에 놓인 가구를 보다 **신속**하게 찾아내고, **단전·단수·단가스** 등 위기 징후가 있거나, **공동주택관리비**를 **장기간 체납**한 가구 등 **에너지·주거 취약가구**를 **중점적**으로 **발굴**한다.

< 몰라서 놓치는 복지혜택 없도록, 필요한 지원 먼저 안내 >

복지멤버십을 통해 안내하는 복지서비스도 기존 164종에서 **209종**으로 **45종 확대**하여 **몰라서 놓치는 복지혜택이 없도록** 개선한다. 특히 올해 11월부터 겨울철 생활 안정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4종**(에너지바우처, 가스요금 할인, 전기요금 할인, 농식품 바우처)을 **선제적**으로 **안내**한다. 아울러, 국민이 직접 신청하지 않아도 필요한 복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신청주의 개선**을 추진한다.

2. 위기가구 생활 안정 지원

정부는 겨울철 **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난방원 중심**으로 **난방비**를 **지원**하고, 생계 · 일자리 · 주거 · 금융 등 **생활 전반**에 걸친 **어려움**을 **완화**한다.

< 취약계층이 주로 사용하는 난방원 중심으로 집중 지원 >

먼저 **에너지 취약계층 약 144만 가구**에 **에너지바우처**를 **연간 36만 7천 원** 지급하고, **등유 · LPG**를 주 난방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22만 가구**에는 **14만 7천 원**을 **추가로 지원**하여 **연간 총 51만 4천 원**을 지급한다. 또한, 이번 겨울부터 등유 · LPG 추가 지원금을 **기존 에너지바우처 카드에 포인트 형태로 지급**한다. 기존에는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선불카드를 수령해야 했으나,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급 방식을 개편**한다.

에너지원별 요금 지원도 이어간다.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에는 세대당 **월 최대 7만 3천 원**, 전기요금은 **월 최대 1만 6천 원**을 **할인**하고, **도시가스** 요금은 **월 최대 14만 8천 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가구당 **약 7.5톤**의 **난방용 땔감**도 제공한다.

아울러, **저소득 가구 약 3.7만 가구**와 **사회복지시설 250개소**에 **단열 시공**, **고효율 보일러 교체** 등 **난방 효율 개선**을 **지원**한다. 또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전국 경로당 6만 9천 개소**에 11월부터 5개월간 **난방비 월 40만 원**을 지원

하고, 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국비지원 사회복지시설 7천 개소**에 내년 1월부터 2개월간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고령·장애 한센인 730세대**가 거주하는 **한센간이 양로주택**에도 **난방비 지원**을 확대한다.

< 생계지원으로 겨울살림 부담 완화 >

생계가 어려운 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가장 어려운 국민의 생활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인 6.70% 인상**하고,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월 최대지급액**도 **인상**한다.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생계비 등을 지원하고, **월 15만 원**의 **연료비**도 **추가 지원**한다. 특히, **내년 1월**부터는 긴급한 위기 해소가 필요한 경우 **현장 재량**으로 **30만 원**을 우선 지원하여, 분유·기저귀 등 필수 생필품을 구입하기 어렵거나, 월세 체납으로 퇴거가 임박한 경우 등 **즉각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진다.

< 어르신·장애인 일자리를 늘리고, 한파에는 안전한 근무 지원 >

겨울철 소득공백을 줄이기 위해 **노인·장애인 일자리도 확대**한다. 노인일자리는 올해보다 2만 8천 개 증가한 **118만 개**, 장애인일자리는 3천 개 늘어난 **3만 8천 개**를 제공한다. 한파 특보가 발령되면 실외활동을 중단하고 실내활동으로 전환하는 등 참여자의 안전도 함께 관리한다.

< 추위에 취약한 집은 고치고, 살 곳을 잃을 위기에는 안전한 거처 마련 >

또한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창호·단열 등 주택 수선을 지원**하고, 폭설 등으로 거처를 잃을 위기에 처한 가구에 **긴급지원주택**을 제공한다. 또한, 쪽방·비닐하우스 등 **주거취약거처**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대상 **공공·민간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지원**하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이사비·보증금* 지원도 병행한다.

* 이사비·생필품 등 최대 40만 원, 보증금 최대 1억 원 대출 지원

< 금융 · 일자리 · 복지서비스를 함께 연결 >

금융위기에 놓인 서민과 취약계층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정책 서민금융**과 **고용 · 복지 · 소상공인 지원** 등 **서비스를 연계**한다. **올해 10월**부터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전화(☎1375)**를 통한 **종합채무상담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12월**에는 **민간 금융회사의 주요 사회공헌사업 등을 모아 안내하는 종합 플랫폼(잇다)**도 구축할 계획이다.

3. 대상별 맞춤형 지원

정부는 **홀로 생활하는 어르신, 노숙인 · 쪽방 주민, 겨울 방학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 한파에 취약한 어르신도 안심할 수 있도록 세심히 관리 >

취약어르신 **56만 6천 명**에 대한 **안부 확인**을 **강화**한다. 평상시에는 방문과 전화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안전을 확인하고,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등 **고위험군**에 대해 **매일 1회 이상 전화 또는 방문**으로 안부를 확인한다. 또한 **독거어르신과 장애인 약 27만 8천 가구**에는 화재감지기, 응급호출기 등 정보통신기술 장비를 활용한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제공하고, **노후 장비 약 9만 대를 교체**한다. 아울러, 어르신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 스피커 약 4천 대를 활용**하여 한파 위험 정보와 행동 요령을 **하루 3번 음성과 화면을 통해 안내**한다.

겨울철 한랭질환 위험이 큰 **치매 어르신**에 대해서는 **실종 예방**을 위한 **인식표** 보급, **치매체크 앱 배회감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안심센터 서비스 이용자 대상으로 **한파 시 행동요령**도 안내한다.

< 노숙인 · 쪽방 주민의 안전을 살피고, 따뜻한 잠자리와 식사 지원 >

한파특보가 발령되면 **거리노숙인 밀집지역**을 **매일 3회** 순찰하고, **쪽방 주민**은 **주 2회 방문 또는 전화**로 안부를 확인한다. 또한 폭설 · 한파에 대비한 **응급잠자리**와 **방한물품, 무료 식사** 등을 제공한다.

< 겨울방학과 폭설에도 끊김 없는 식사와 돌봄 >

겨울방학 중 아동의 식사·돌봄 공백을 줄이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겨울방학 **급식 공백에 대비**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등의 **결식우려 아동을 발굴하고 급식을 지원**한다.

또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확대하고 **급식과 간식을 추가 지원**하는 **틈새돌봄**을 제공한다. 틈새돌봄 운영기관은 올해 1,505개소에서 **내년 2,200개소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호자의 생업 등으로 **늦은 시간까지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는 **오후 10시** 또는 **자정까지 야간 연장돌봄**을 제공한다. 야간 연장돌봄 운영기관도 올해 347개소에서 **내년 393개소 이상 확대 추진**한다.

< 장애인의 일상은 공백 없이, 국가유공자의 겨울나기는 더욱 든든히 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폭설 등 **천재지변**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특별지원급여**(월 20시간)를 제공한다. 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겨울철 취약계층 국가유공자 집중지원기간**('26.12.~'27.2.)을 지정·운영한다. 취약계층 유공자 자택을 직접 방문하여 **건강·난방 등 생활실태를 점검**하고 폭설·한파 등 재해 발생 시 **재해위로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예정이다.

4. 한파 대비 건강·안전 관리

한파에 따른 **건강 피해**를 **조기에 파악**하고, 고령자·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적 관리**를 **강화**하고, 각종 **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 한랭질환을 신속히 살피고, 건강 취약계층은 촘촘히 관리 · 지원 >

전국 약 500개 응급실을 중심으로 **한랭질환 모니터링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한파로 인한 겨울철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어린이,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백신 무료 접종을 실시한다. 특히, 어린이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기존 13세에서 14세까지 확대하였으며, 어르신 등 고위험군의 보호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를 위해 임시예방접종에서 필수예방접종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내년 1분기**부터 **56만 6천 명 취약어르신**의 **낙상사고 치료 · 회복비**를 **새롭게 지원**하여 겨울철 빙판길 넘어짐 사고 시 치료비 걱정을 덜어드린다.

올해 **11월부터**는 방문건강관리 대상 약 **100만 가구** 중 **'오늘건강' 앱** 이용자에게 **그림형태**로 **위치 기반 한파 관련 정보**를 자동 발송하고, 한파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대상자의 **난방환경**과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보건소**의 **한파 대비 건강관리**를 **강화**한다.

< 한파 쉼터를 운영하고, 각종 시설의 안전사고를 예방>

아울러, 한파에 취약한 분들이 가까운 곳에서 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한파 쉼터**를 **약 6만 4천 개소** 운영하고, 한파특보 발령 시 읍면동별 **최소 1개소 이상**을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토록 한다.

사회복지시설과 **의료기관**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노숙인 시설의 **노후시설 개 · 보수**를 **지원**하고, **쪽방촌 위험물 제거**를 통해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5. 따뜻한 나눔 문화 확산

정부는 **공공의 지원**에 **민간의 나눔**을 더해 겨울철 어려운 이웃에게 필요한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전반으로 **나눔 문화**를 **확산**한다.

< 겨울철 끼니 걱정 없도록 따뜻한 겨울 지원 >

먼저,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그냥드림 코너**에 한파에 대비한 **'겨울나기 그냥드림 패키지'**를 구성하여 지원한다. **따뜻한 차, 즉석 죽 등 온열 먹거리**와 **핫팩·방한양말 등 방한용품**을 함께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돕는다.

민간 영역에서도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겨울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희망2027나눔캠페인'**을 통해 연말연시 집중 모금을 추진한다. 또, 나눔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가 함께 **겨울철 집중 나눔·봉사활동 기간**('26.12~'27.1.)을 운영하여 김장김치 나눔 등 자원봉사와 기부활동을 진행한다.

정은경 장관은 "**겨울의 추위가 매섭게 파고들수록 어려운 이웃을 향한 관심과 온정은 더욱 두터워져야 한다**"라며,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한발 앞서 찾아가고**, **복지의 온기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모두가 함께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중앙·지방정부와 수행기관뿐만 아니라 **국민**께서도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 관심을 두시고**,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복지위기 알림 앱** 등으로 **도움**을 **요청**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1.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추진방향
2.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주요 개선·강화 과제
3. 달라지는 겨울의 모습(AI로 이미지 구성)
4. 한눈에 보는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5.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관련 포스터

<별첨> 2026년~2027년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대책

담당 부서 <총괄>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연숙 (044-202-3020)
		담당자	사무관	유수희 (044-202-3009)
<한파쉼터>	행정안전부 기후재난관리과	책임자	과 장	장형석 (044-205-6360)
		담당자	주무관	최나은 (044-205-6362)
<자원봉사>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공동체과	책임자	과 장	김양지 (044-201-5850)
		담당자	주무관	김이진 (044-205-3176)
<에너지바우처> <에너지효율개선>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적응과	책임자	과 장	이승준 (044-201-6040)
		담당자	사무관	양동춘 (044-201-3638)
<지역난방	기후에너지환경부 열산업혁신과	책임자	과 장	김범직 (044-201-7880)
		담당자	사무관	허지영 (044-201-7881)
<전기요금>	기후에너지환경부 전력시장과	책임자	과 장	김양지 (044-201-5850)
		담당자	주무관	김유림 (044-201-5857)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부 복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정충복 (044-202-5610)
		담당자	사무관	김신영 (044-202-5620)
<가스>	산업통상부 가스산업과	책임자	과 장	한주현 (044-203-5180)
		담당자	사무관	유영찬 (044-203-5216)
<취약계층 주거상향>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최정민 (044-201-4504)
		담당자	사무관	류해진 (044-201-4740)
<주거급여> <긴급지원주택>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책임자	과 장	조성태 (044-201-4530)
		담당자	사무관	윤현식 (044-201-3358)
		담당자	사무관	박승규 (044-201-4479)
<땔감지원>	산림청 산림자원과	책임자	과 장	김진아 (042-481-4180)
		담당자	사무관	김영재 (042-481-4218)
<한센간이양로 난방비>	질병관리청 결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지영 (043-719-7310)
		담당자	서기관	박장호 (043-719-7311)
<예방접종>	질병관리청	책임자	과 장	이혜림 (043-719-8360)

	예방접종관리과	담당자	연구관	구현숙 (043-719-8365)
<한랭질환 감시체계>	질병관리청 기후보건건강위해대비과	책임자	과 장	박숙경 (043-219-2950)
		담당자	사무관	안대식 (043-219-2951)
<한파영향예보>	기상청 예보정책과	책임자	과 장	김성묵 (02-2181-0492)
		담당자	사무관	박소영 (02-2181-0493)
<복합지원>	금융위원회 복합지원팀	책임자	팀 장	이호영 (02-2100-1652)
		담당자	사무관	정재윤 (02-2100-1653)
<낙상사고 지원>	금융위원회 보험과	책임자	과 장	임형준 (02-2100-2960)
		담당자	전문관	이민형 (02-2100-294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1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추진방향

목표 위기는 줄이고, 복지의 온기는 더해 모두가 따뜻한 겨울나기

기본 방향 겨울철 위기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대상별 맞춤형 보호와 생계·난방·건강·안전 등 생활 전반의 종합적 지원 추진

핵심 추진 과제

겨울철 위기가구 집중발굴	▪ 겨울철 위기가구 선제 발굴 ▪ 복지멤버십을 통한 복지서비스 사전 안내 ▪ 주요 사회보장급여 선제 지원 추진
위기가구 생활 안정 지원	▪ 난방비 지원 및 난방 환경 개선 ▪ 기초생활보장·긴급복지 등 생계지원 ▪ 일자리 지원 ▪ 주거 안정 지원 ▪ 금융 지원
대상별 맞춤형 지원	▪ 홀로 계신 어르신 등 취약어르신 ▪ 노숙인·쪽방 주민 ▪ 취약 아동 ▪ 장애인 ▪ 국가유공자
한파 대비 건강 및 안전관리	▪ 한랭질환 감시체계 운영 ▪ 무료 예방접종 및 감염병 대비 ▪ 방문 건강관리 ▪ 한파 쉼터 운영 및 이용 편의 제고 ▪ 사회복지시설 등 안전사고 예방 관리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	▪ 자원봉사·기부 활성화 ▪ 그냥드림, 푸드뱅크 등 통한 먹거리·생필품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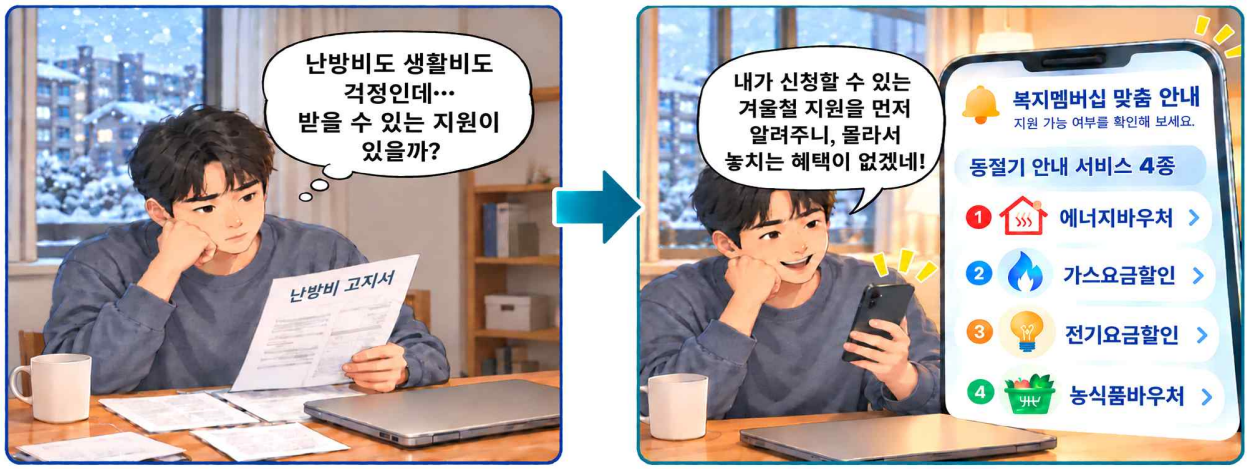
붙임 2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주요 개선·강화 과제

정책 분야		'25~'26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	'26~'27 겨울철 취약계층보호 대책
01 겨울철 위기가구 집중 발굴	복지사각지대 발굴	• 위기징후 정보 47종 활용	개선 • 위기징후 정보 **50종** 활용 (+3종)
	복지멤버쉽	• 복지서비스 164종 안내	개선 • 복지서비스 **209종** (+45종) 신규 •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 맞춤 복지서비스 **4종** 선제 발굴·안내 ('26.11월) - 에너지바우처, 가스요금할인, 전기요금할인, 농식품바우처
	신청주의 개선	-	신규 • 주요 사회보장급여 **선제 지원** 추진
02 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	기초생활 보장	• 4인가구 생계급여 최대 월 207.8만 원	강화 • 4인가구 생계급여 최대 월 **221.7만 원** (+13.9만 원)
	긴급복지	• 동절기 연료비 월 15만 원 추가 지원	신규 • 즉각적 위기해소 필요 시 생계지원 우선지급 (**30만 원**)
	노인·장애인 일자리	• (노인) 115.2만 개 ('26) • (장애인) 3.5만 개 ('26)	강화 • 노인 **118.0만 개**(+2.8만 개, '27) • 장애인 **3.8만 개**(+0.3만 개, '27)
03 대상별 맞춤형 지원	어르신	• 취약어르신(56.6만 명) 안부 확인 및 경로당 양곡비 지원	신규 • **경로당 부식비** 국비 지원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 27.8만 가구에 ICT 장비 설치하여, 응급상황 감지시 자동 119 신고	개선 • 27.8만 대 중 노후 장비 9만 대 교체
	취약아동 돌봄지원	• 결식우려아동 발굴·지원	신규 • 초등틈새돌봄 운영시간 확대 (9~18시 또는 11~20시), 급·간식 지원 ('26) 1,505개소 ▸ ('27) **2,200개소** 이상 추진 신규 • 야간 연장돌봄(~22시 또는 24시)으로 긴급상황 시 돌봄 제공 ('26) 347개소 ▸ ('27) **393개소** 이상 추진
04 건강·안전 관리	방문건강 관리	• 건강관리 대상자(100만 가구)에 방문·전화 통한 건강상태 파악	신규 • 건강관리 대상자에게 **'오늘 건강 앱'**으로 위치 기반 한파 정보를 **그림 형태**로 제공
05 나눔문화 확산	그냥드림	• 52개 시군구·56개 코너로 시범 사업 시작	강화 • **230개**전 시군구·**489개** 그냥드림 코너 설치 신규 • 한파 대비 동절기 맞춤형 **'겨울나기 그냥드림 패키지'** 구성·지원

붙임 3 | **달라지는 겨울의 모습** AI로 이미지 구성

겨울철 복지지원 4종, 몰라서 놓치는 일 없도록 챙겨드릴게요.

* "복지멤버십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 서비스 4종 대상자 선제적 발굴·안내('26.11월~)"



우리 동네 한파 위험, AI 스피커로 미리 알려드려요.

"인공지능(AI) 스피커 활용한 어르신 한파 영향예보 알림 서비스 실시('26.1월~)"



등유·LPG도 에너지바우처 카드 한 장으로, 더욱 편리하게 이용하세요.

"등유·LPG 에너지 요금 지원 절차 개선('26.12월~)"



붙임 4 | **한눈에 보는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2026~2027년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대책

위기는 줄이고, 복지의 온기는 더하는 겨울

01 겨울철 위기가구 집중 발굴

- 겨울철 **에너지·주거 취약가구** 중점 발굴
- 에너지바우처 등 동절기 복지서비스 **4종 선제 지원** 안내
  - 에너지바우처 | 가스요금할인 | 전기요금할인 | 농식품바우처
- 복지급여 대상자에게 신청 없이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주요 사회보장 급여 선제 지원 추진

02 위기가구 생활 안정 지원

에너지바우처
약 144만 가구
연 36.7만 원

등유·LPG 사용가구
약 22만 가구
연 14.7만 원 추가 지원
기존 에너지바우처로 지급

- 지역난방·전기·도시가스 동절기 요금 지원
- 긴급복지 연료비 **월 15만원** 추가 지원
- 생계·일자리·주거·금융 지원

03 대상별 맞춤형 지원

- 취약어르신 **56.6만 명** 안부확인
- 노숙인·쪽방 주민 보호 및 지원
  - 한파특보 시 노숙인은 **매일 3회**, 쪽방 주민은 **주 2회** 확인
- **겨울방학 중 나홀로집에 예방**을 위해 22시 또는 24시까지 **야간 연장돌봄**
- **방학 중 돌봄이 필요한 아동**에게 9~18시 또는 11~20시 **틈새돌봄 제공**
- 장애인·국가유공자 지원 확대

04 한파 대비 건강 및 안전 관리

건강관리 대상자
오늘건강 앱 통해
위치 기반 한파 정보 발송

한파쉼터 6.4만 개소 운영
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분들이
안전하게 머무를 수 있도록

- 한랭질환 감시체계 운영
- 방문건강관리 강화
- 시설 안전점검

05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

그냥드림 코너 전국 설치
전국 230개 시군구·489개소

겨울나기 그냥드림 패키지 지원
온열 먹거리, 방한용품 포함

- 연말연시 나눔·기부 활성화

관계부처 합동

붙임 5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 관련 포스터

